

‘베니스 글라스 판타지아’ 전시장서 유리공예 시연 카티아씨



“황홀한 유리의 마력에 빠져보세요”

“관객들이 뜨겁게 달궈진 유리 재료가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신기하게 지켜보고, 기뻐해 주니 무엇보다도 즐겁습니다.”

‘베니스 글라스 판타지아’ 특별전(오는 8월22일까지·광주문화회관 전시장) 참석차 광주를 방문한 세계적인 유리 램프워킹(Lamp working) 작가 카티아 데코라티(38·Katia decorati)씨가 지역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램프워킹은 800℃의 뜨거운 불로 유리 붓을 달궈 유리 작품을 만드는 기법이다. 그녀는 이탈리아 베니스 무라노 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분야 유명 작가다.

그녀는 전시장 한 칸에서 램프워킹으로 작품을 만드는 전 과정을 관객들에게 공개하는 이번 전시 특별프로그램 참석차 지난달 18일 광주를 찾았다.

관객들은 순식간에 강아지, 꽃, 나비, 발레리나 등 각각각색의 작품을 만들어 내는 유리 장인의 능숙한 손놀림에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유리 공예 고장인 이탈리아 무라노 섬의 대표 유리 작가 카티아 데코라티씨가 지난달 3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전시장에서 800℃가 넘는 강한 불로 작품을 만들고 있다. 위는 카티아씨 유리공예 작품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램프워킹 거장…특별전서 ‘마법 손놀림’ 선포

“문화도시 광주에 유리 공방·작가 없어 놀라”

산소와 LPG를 이용해 이탈리아에서 공수해온 유리 막대를 녹인 뒤 몇 분만에 다양한 작품을 만드는 마술 같은 손놀림은 황홀한 마술 같다.

그녀가 불에 달궈져 밀가루 반죽처럼 흐늘거리는 유리 막대를 쇠 집게로 집어 모양을 잡고, 다양한 색을 입히면 순식간에 양중맞은 유리 강아지와 역동적인 춤사위를 선보이는 유리 발레리나가 탄생한다.

“이탈리아 유리는 재료를 일정한 틀에 넣어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작가들이 직접 불에 달궈 하나하나 만들기 때문에 똑같은 작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유로운 상상력을 그대로 작품에 녹일 수 있는 매력이 이탈리아 유리공예를 감상하는 묘미입니다.”

그녀는 이탈리아의 디자인학교를 졸업한 뒤 베니스에서 유리공예를 배웠다.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는 베니스 유리 공방의 기법을 모두 배우기까지는 11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다.

긴 대중에 바람을 불어 넣어 대형 작품을 만드는 유리 불로잉 기법을 마다하고, 소형 작품만을 만들 수 있는 램프워킹을 선택한 것은 유리 고유의 자유로움을 만족하기 위해서다.

“대형 작품은 여러 작가들이 힘을 합쳐 만들어야 하는데, 램프워킹은 혼자서 자유롭게 창작하는 매력이 있어요. 또 매일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고, 관객과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호흡할 수 있습니다”

이다”

이 때문에 그녀의 램프워킹을 지켜보기 위해 이번 전시를 찾는 관객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 손짓 발짓으로 대화를 주고 받지만, 관객들이 서툰 발음으로 ‘버터플라이’를 연 발하면 그녀는 어느새 아름다운 나비 한 마리를 만들어 낸다.

“유리 산업은 계속 발전하는데, 문화도시라는 광주에 유리 공방과 작가들이 전혀 없다는 소리를 듣고 무척 놀랐어요. 이번 전시를 통해 더욱 많은 관객이 유리의 아름다운 마력에 흠뻑 빠져들었으면 좋겠어요.”

한편 오는 8월22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세계 최고의 유리 공예 거장 피노 시노레토(Pino Signoretto)의 대표작과 베니스 대표 유리 공방 스키아본(Schiavon) 가문의 대표작 등 120점을 선보인다. 문의 062-511-0349.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발의 434건중 가결 9건에 그쳐

광주·전남 국회의원 2년간 입법 성적표

가결률 2.1% 불과…전체 평균 5분의 1

김동철 54건으로 1위, 박상천의원 3건

18대 국회 2년여 동안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평균 21.7건의 법률안을 발의, 전체 의원 평균인 24.0건보다 저조한 입법 성적표를 기록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김동철 의원이 54건을 발의, 가장 많은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박상천 의원은 단 3건의 법률안을 발의해 가장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지난달 30일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의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년여 동안 209명의 국회의원이 모두 7180건(대표 발의 기준·1인 평균 24.0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 17대 국회의원 209명이 4년 동안 발의한 법률안 6345건(1인 평균 21.2건)보다 많은 것이다.

또, 광주·전남 국회의원 20명은 지난 2년여 동안 모두 434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원별로는 재선의 김동철 의원이 ‘부도 공공건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 54건의 법률안을 제출해 가장 우수한 성적표를 기록했으며 초선인 김재균 의원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45건, 우윤근 의원이 ‘즉결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34건의 법률안을 각각 발의해 뒤를 이었다.

반면, 박상천 의원은 대표 발의 1건, 1인 발의 2건 등 모두 3건만을 발의했으며 유선호(8건), 최인기(11건) 의원의 법안 발의 성적도 초라했다.

하지만, 법률안 발의가 많다고 무조건 의

정 활동을 잘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18대 국회 들어 광주·전남 의원들은 전체 434건 중 9건의 법률안만 가결시켜 2.1%의 통과율을 보였다. 지난 2년여 동안 국회 전체 가결률 11.2%(7180건 중 805건 가결)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이 점에서는 우윤근 의원의 성적표가 가장 돋보였다. 우 의원은 전체 발의 건수 34건 중 원안 가결 1건, 수정 가결 3건 등 모두 4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또 박지원·이낙연·강은태·김재균·이윤석 의원 등이 제출한 1건의 법률안이 각각 가결됐으나 다른 의원들의 법률안은 계류 중이거나 폐기·철회됐다.

의원들의 입법 능력이 부족하거나 ‘일단 내고 보자’는 식의 실적 경쟁이 빚은 결과라는 지적이다. 겉으로는 의원 발의지만 정부가 법안을 만들어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관례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순수 의원 발의 법안의 실제 통과율은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아직 계류 중인 법안이 많고 폐기된 법안의 경우 대안 법안 때문에 사장된 것도 많아 단순한 가결 법안 수치로 의원들의 입법성적표를 매기는 것은 무리”라며 “하지만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입법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8대 국회 광주·전남 국회의원 법안 발의(우순) 의원 법률안 발의 및 처리 결과

Table with 2 columns: Name, Legislation Details (Number of bills, passed, rejected, etc.)

鄭총리 “세종시 수정안 부결 전적으로 책임 지겠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세종시 수정안의 부결과 관련, “세종시 수정안을 설계했던 책임자로서 수정안을 관철하지 못한 데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더이상 국민이 분열돼서는 안되며 모든 논란과 갈등도 해소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그러나 책임이 총리직 사의 표명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정 치권에서는 정 총리의 “책임지겠다”는

발언이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할 상황이라면 굳이 피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아련의 요구대로 무조건 사퇴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어 주목된다.

정 총리는 이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반대하는 분들을 끝까지 설득해 내지 못한 것은 저의 능력과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국회 표결이 끝난 지금 이제 총리로서 이 문제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안타깝지만 국회 결정을 존중하며 국회 결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법

의 취지대로 세종시를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등에 업고도, 현실정치 의 벽을 넘지 못하면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했다”며 “우리 역사와 미래의 후손들은 어제의 국회 결정을 어떻게 평가할 지 걱정이다. 정략적 이해관계가 국익에 우선했던 대표적인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10 Gwangju VENICE GLASS FANTASIA exhibition poster with dates 2010.6.19-8.22 and a colorful glass horse illustration.